

인터뷰

전종화 aT 상임감사

“사전 예방 ‘정책 제안형’ 감사 확대”

지난 2024년 11월 취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종화 상임감사는 40년 농정 현장 경험과 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혁신과 경영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 상임감사는 행정과 농정, 감사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취임 이후 AI 기반 감사체계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 현장 중심 소통 확대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본보는 전 상임감사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감사 운영 방향과 철학은 무엇인가?

-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적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기관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취임 이후에는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현장·행정 경험 두루 갖춘 농정 전문가 AI 기반 스마트 감사체계로 위험 통제 직원·고객 소통 강화 조직문화 혁신 주도

으로 지원했다. 감사실 직원들은 1인당 평균 151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했으며 저역시 서울대학교 최고감사인 과정을 수료하고 최고감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 향상에 노력했다.

▲청렴경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공사 최초로 반부패·윤리TF를 출범시켰다. 예산 집행과 조직문화, 인사제도, 정책사업 운영 등 전 분야를 점검해 49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내부 청렴도 전 항목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청렴문화는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급 떼고, 섞어 반개방'이라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직급과 부서를 떠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9차례 진행했으며 농업인과 사업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한 감사인대회에서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고,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는 15년 만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저는 평소 '감사는 조직을 위축시키는 칼날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체계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 앞으로도 사후 적발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제안형 감사를 확대하겠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농어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태호 기자

저는 지난 1980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읍면과 시군, 전남도청 등에서 농업·농촌 정책을 담당하며 생산과 유통, 수출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감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감사를 수행할 때 단순히 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추진한 주요 감사 성과와 조직 혁신 사례는?

-대표적으로 수급비축사업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식품가공용 두류(콩 종로 곡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 제한 조치를 강화했고, 비축농산물 입찰보증금 반환 절차를 개선했다. 또 수입쌀 운송비 절감 방안도 마련해 공사의 공익적 기능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였다.

인사·노무 특정감사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도 점검했다. 외부 전문가의 직무분석을 실시해 정원 관리 체계를 정비했고 농업직 별도 직렬 관리, 승진 심의 절차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기반

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5년에는 제도개선 처분 건수가 전년 24건에서 37건으로 약 54% 증가해 단순한 지적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과를 거뒀다.

▲AI를 활용한 감사 혁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감사 역시 변화해야 한다. 취임 직후 'AI 감사 3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기반 자체 감사모델 구축과 감사 챗봇 개발을 추진했다. 과거 감사 사례와 규정,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AI 분석을 통해 근로계약서 교부 부적정 사례, 두류 사후관리 미비 사항, 탄력근무제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진단을 하고 IT와 AI 등 취약 분야 교육을 집중적



휘발유·경유 전국평균 가격 2주 연속 하락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기름을 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L당 0.2원 내린 2천11.1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원 하락한 2천5.7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남 서남부 제조·비제조업 기업심리 동반 개선

한은 목표분부, 5월 경기조사

양업종 CBSI 전월비 각 4.3p·5.4p ↑

경영애로사항 1위 인력난·내수부진

5월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비제조업 기업 심리가 전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 목표분부의 5월 전남 서남부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비제조업 CBSI(기업심리지수)는 109.8·103.4로 전월 대비 각각 4.3p·5.4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도 전월대비 모두 5.4p 상승한 112.2·99.5로 집계됐다.

기업심리지수(CBSI, 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치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의미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3으로 전월대비 2p 상승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74)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매출BSI 실적은 92로 전월대비 16p, 다음달 전망(96)도 전월에 비해 19p 각각 상승했다.

채산성BSI 실적은 71로 전월대비 3p, 다음달

전망(73)도 전월에 비해 6p 각각 올랐다.

자금사정BSI 실적은 67로 전월대비 5p, 다음달 전망(72)도 전월에 비해 6p 각각 상승했다.

경영애로사항 중 인력난·인건비상승(23.5%)을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가격 상승(22.1%), 내수부진(16.2%), 자금부족(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부진(+7.4%p)으로 응답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원자재가격 상승(-11.7%p)으로 응답한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65로 전월대비 9p, 다음달 전망지수(63)는 전월에 비해 7p 각각 상승했다.

매출BSI 실적은 64로 전월대비 5p, 다음달 전망(63)은 전월에 비해 2p 각각 올랐다.

채산성BSI 실적은 75로 전월대비 11p, 다음달 전망(73)은 전월에 비해 5p 각각 상승했다.

자금사정BSI 실적은 66으로 전월대비 3p, 다음달 전망(67)은 전월에 비해 1p 각각 올랐다.

경영애로사항 중 내수부진(29.5%)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가격 상승(19.2%), 인력난·인건비 상승(1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부진(+2.8%p), 원자재가격 상승(+1.9%p)으로 응답한 비중이 증가한 반면, 불확실한 경제상황(-2.3%p)으로 응답한 비중이 감소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은·한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용익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와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